

산불에 재배면적 감소...金과일 되나

농경연, 농업관측 과일 4월호 발표...전국 최대 배 생산지 호남 1.2%↓
전국 사과 재배면적 3만 3113ha...감귤·단감·포도·복숭아 모두 감소

올해 우리나라에서 재배하는 주요 과일들의 재배면적이 1년 전보다 모두 감소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역대급 산불과 이상기후로 인한 수급 불안정에 다 과수 농가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감소, 품종 전환 등으로 재배면적마저 줄어들면서 주요 과일의 가격이 오름세를 보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8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농업관측센터는 사과, 배, 감귤, 단감, 포도, 복숭아 등 국내 주요 6대 과일에 대한 올해 첫 관측 결과를 담은 '2025년 농업관측 과일 4월호'를 발표했다.
관측 결과에 따르면 2025년산 사과 재배면적은 3만 3113ha로 전년 대비 0.6% 감소했다. 국내 사과 최대 공급처인 영남지역에 최근 발생한 초대형 산불 등의 영향으로 영남 사과 재배면적이 0.5% 줄어든 2만 3309ha를 기록했고, 경기(-2.5%), 호남(-1.9%), 충청(-1.8%) 등에서도 재배면적이 줄었다. 다만 강원지역은 기후 온난화 영향으로 인한 사과 재배지 북상,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사업 등으로 사과 재배면적이 소폭 확대되면서 감소폭을 좁혔다.
품종별로는 전체 생산량의 60% 이상 비중을 차

지하는 후지 사과 재배면적이 2.4% 줄었고, 홍로(-3.3%), 쓰가루(-1.7%), 양광(-8.7%) 등도 줄었다.
최근 2년간 이상기후 여파로 가격이 대폭 오른 사과는 올해 역시 평년보다는 높은 수준의 가격을 형성할 것으로 예상됐다.
현재 사과 저장량이 지난해보다 17% 많은 7만 t 가량이고, 4월과 5월 이후 예상 출하량이 전년 대비 16.5~17.5% 많다는 점에서 가격하락을 기대해볼 수 있지만, 여전히 평년보다는 출하량이 15.8~23.1%가량 적은 수준에 머물렀다.
배 재배면적은 주요 과일 가운데 가장 감소폭이 컸다. 2025년산 배 재배면적은 전년보다 1.9% 축소된 9241ha로 집계됐다. 유목면적은 신품종 신규 식재 및 국내 육성품종 보급사업 등으로 8.5% 늘었지만, 성목면적이 농가 고령화와 도시개발 및 과수화상병 등의 여파로 3.0% 감소했다.
지역별로 전국 최대 배 생산지인 호남지역의 재배면적이 1년전보다 1.2% 줄었고, 강원·경기(-3.2%), 충청(-2.9%), 영남(-0.8%) 등 전국에서 모두 재배면적이 감소했다.
올해 출하량 역시 4월에는 전년에 견줘 4.4% 높

을 것으로 전망되지만, 5월 이후에는 조기 출하 등의 영향으로 출하량이 전년과 평년 대비 각각 16.5%, 51.1% 줄어든 것으로 예상되면서 지난해 가장 큰 가격 상승률을 기록했던 배 가격이 또다시 상승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이 밖에 감귤, 단감, 포도, 복숭아 등의 재배면적도 모두 축소된 것으로 조사됐다. 감귤 재배면적은 1만 9409ha로 전년보다 0.5% 감소했다. 전체 재배면적의 92.6%를 차지하는 성목면적이 1.1% 줄었고, 유목면적은 6.4% 늘었다. 이는 감귤 농가 고령화 및 노목화 등으로 감귤 농가가 줄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단감 재배면적 역시 1.6% 감소해 9076ha를 기록했다. 농가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부족으로 폐원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지역별로 전체 생산량의 70%가량을 차지하는 경남이 1.7% 줄었고, 전남(-1.5%), 경북(-0.5%) 등 모든 지역에서 재배면적이 줄었다.
포도의 경우 국내에서 큰 인기를 끌던 샤인머스켓 가격이 대폭 하락하면서 품목을 전환하는 농가가 증가함에 따라 재배면적 역시 0.9% 축소된 1만 4512ha로 집계됐다.
복숭아 재배면적은 2만 243ha로 1년전보다 0.2% 줄었다. 주산지인 영남은 재배면적이 0.7% 늘었지만, 충청(-1.9%), 호남(-1.4%)이 전체적인 재배면적 감소세를 견인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aT, 전국당주상품교역회 참가...인삼·음료 등 K-푸드 알렸다

농식품부와 통합한국관으로 첫 참가
905만불 MOU·중국 서부 진출 성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지난달 25일부터 27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농식품부)와 함께 중국 청두에서 개최된 ‘전국당주상품교역회(CFDF)’에 참가했다”고 8일 밝혔다. <사진> CFDF는 지난 1995년 시작돼 올해로 112회를 찾은 중국 서부 내륙 최대 규모의 식품박람회다. 이번 CFDF에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싱가포르, 캐나다, 태국 등 52개국의 2000여개 식품·주류 브랜드가 참여했으며, 43만명 이상의 참가객이 방문했다.
aT와 농식품부는 중국 2선 시장 개척을 위해 CFDF에 처음으로 통합한국관으로 참가했다. 통합한국관에는 국내 수출기업 19개사와 1개 지자



체가 참여해 인삼, 음료, 주류, 스낵류 등 다양한 K-푸드를 선보였다. 특히 ‘전통주-홍삼’, ‘커피-스낵류’ 등 대표 제품을 묶은 페어링 시식 행사 등이 큰 호응을 얻었으며, 905만불 규모의 업무협약(MOU)와 현장계약 및 K-푸드의 중국 서부 내륙 시장으로의 진출 성과를 거뒀다.

권오엽 aT 수출식품이사는 “중국 서부 내륙지역은 중국 연안지역보다 한국식품의 진출이 상대적으로 적은 시장”이라며 “중국 내륙 주요 도시까지 K-푸드 수출을 확대하는 등 대한민국 식품 영토를 확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농어촌공사, 공사감독 대상 현장 순회 교육

토목·건축·조경 등 체험 실습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는 “이달 말까지 130여명의 공사감독을 대상으로 현장 순회 교육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현장 순회 교육은 전남지역 농어촌 지역개발사업의 품질 향상을 위해 마련됐다. 지역개발사업은 농어촌 중심지 및 거점인 읍·면 소재지에 교육·복지·문화·경제 등의 복합서비스 제공과 지역사회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커뮤니티

센터 등 공간 정비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전남지역본부는 올해 전남권역의 총 166지구, 1482억원 규모의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현장 교육 과정은 토목, 건축, 조경, 기계, 전기 등 지역개발사업의 모든 분야를 대상으로 하며, 실제 시공 사례를 중심으로 체험형 실습 등을 통해 업무에 적용할 수 있는 교육들을 진행할 예정이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농산물품질관리사 김대성 기자의

‘농사만사’

대형 산불에 손 못 쓴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률 낮고 보상 체계 혼선...시기·품목 확대 개선 필요

최근 경북지역 대형산불 참사로 농업인은 물론 온 국민이 실의에 빠져 있는 가운데 보상과 복구가 난관이라는 소식이 들려 마음이 무겁다. 도시민처럼 화재보험에 가입해 적절한 보상을 받으면 좋겠지만, 조유의 사태인 데다 보상 절차와 조건 등이 달라 이런저런 말들이 있는 모양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번 참사와 관련 ‘산불 피해지역 농업인 지원방안’을 발표하고 피해 농작물의 농약대·대파대(새로 파종하는 데 드는 돈), 가족 입식비, 시설 복구비 등을 지원하는 한편 농가 단위 피해율이 50% 이상이면 2인 가구 120만 원, 4인 가구 187만 원 등 생계비와 학자금 1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또 일반재난지역은 국세·지방세·국민연금 등 23개 항목을, 특별재난지역은 여기에 건강보험료·전기료·통신료 등 13개 항목을 추가해 납부 유예와 감면 처리를 시행한다.
한데 해당 농업인들은 농정당국의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정부 대책이 민간업체의 과수 묘목 보유분에 대한 피해 농가 우선 공급 계획, 농기계 수리 및 무상 임대, 농기계 할인 판매 검토와 함께 정책 자금 상환 유예와 이자 감면 수준에 그치고 있어 산불 피해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될 수 없다며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여기에 낮은 농기계종합보험 가입률과 특약 가입 시에만 지급하는 보험 요건도 미래 기대수익에 대한 보상 등을 불투명하게 하고 있다고 우려한다. 예상치 못한 산불 피해를 본 상황에서 보험 또는 특약 가입만으로 보상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농업인 안전보험과 농기계 보험, 농작물재해보험 등 농업 관련 보험에 대한 무용론까지 나오는 실정이다. 특히 농작물재해보험과 관련한 불만이 크다.
농정당국이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농작물재해보험은 NH농협손해보험이 운영하며 정부가 33~60%, 지방자치단체가 15~40%의 보험료를

지원하는 보험이다. 1~2월 사과, 배, 단감, 뽕은 감 등 주요 과수를 시작으로 2~12월 농업용 시설 및 시설작물, 4~5월 벼, 4~6월 벼, 10~11월 녹차 등의 품목에 대해 농작물 재해를 보장하고 있으며 보장 범위는 손해액의 50~70% 정도로 높은 편이다.
하지만 이렇게 좋은 보험도 대형산불이라는 조유의 사태 앞에선 한계를 보이고 있다. 품목별 가입시기와 현실과 동떨어진 보상체계가 문제다. 실제로 피해지역의 중심 작물인 사과의 경우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률이 99.1%(2024년)에 달하지만, 고사나무에 대한 손해와 향후 예상 손실을 고려한 보상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농가들은 보통 과일을 생산하지 않는 1~3년생 과수나무에 대한 특약에 가입하지 않아 고사된 나무의 미래 기대수익에 대한 충분한 보상을 기대하기 어렵게 됐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농번기에만 가입하는 농작물재해보험의 특이성도 대형 자연재해를 맞는 농업에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매년 농작물별로 시기에 맞춰 가입해야하는데, 정부나 지자체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보험료가 부담스러워 들기를 꺼리는 경우가 많아서다. 이번 산불피해 피해지역에서 주로 재배하는 마늘(34.4%), 단감(36.9%), 뽕은 감(37.2%), 시설딸기(44.3%) 등의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률이 높지 않고, 소의 가축재해보험과 농기계종합보험의 가입률도 각각 15.0%, 14.6%에 그쳐 보상지체를 받을 수 없다는 이야기도 들린다.
지구 온난화 등 기후 변화로 자연재해가 일상화되고 있는 만큼, 농작물 피해에 대한 보상방안도 변화야 할 때다. 현재 농작물 피해 보상 방식인 대파대 형태엔 한계가 있으며, 농작물재해보험의 안전망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그리고 당부 말씀, 그래도 농작물재해보험은 꼭 가입하시라.
/bigkim@kwangju.co.kr

농협 광주본부, 매주 금요일 직거래장터 연다

11일 방울토마토·가지 등 특판

지역 우수 농산물을 저렴하게 믿고 살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
농협광주본부는 오는 11일부터 매주 금요일마다 금요 직거래장터를 연다. 지역 우수 농산물의 판매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첫 직거래장터에서는 산지 특판 행사를 통해 방울토마토·가지·애호박·부추·꽃고추 등 지역 육성 농산물을 시종가 대비

50% 이상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

쌀 소비 촉진을 위한 인절미 나눔과 농산물 물렛 행사 뿐 아니라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홍보관도 운영한다.
앞서, 농협광주본부는 지난 2일 농협광주본부 회의실에서 실무협의를 갖고 경제지원단과 15개 농·축협 담당자, 광주시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직거래장터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www.e-dk.co.kr

쾌적하고 깨끗한 생활을 위한 스마트 가전이 한 곳에!



벽걸이 공기청정살균기



스탠드 공기청정살균기



제습기



레인지후드



전기룩탑

공기청정살균기 | 공기청정기 | 공기순환기 | 제습기 | 레인지후드 | 전기룩탑

판매 및 A/S 문의 1544-1154